

대학박물관 최초, 전통의 이름으로 초고령사회를 응시하다!

- 고려대학교박물관 특별전 개최

1. 전시개요

- 1) 전시명: 老年(노년)을 넘어 熟年(숙년)의 시간
- 2) 전시주제: 전통사회 노년의 삶과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응 양상 조명
- 3) 주최: 고려대학교박물관
- 4) 전시장소: 고려대학교박물관 기획전시실(B1, 1층)
- 5) 전시기간: 2026.07.02.(목)~2026.09.12.(토)
- 6) 전시개막: 2026.07.07.(화) 오후 3시
- 7) 대표유물: 이경운 作 《산수인물화첩(10폭 전체)》,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수친양로 신서》, 《의령남씨전가경완도-〈선묘조제재경수연도〉》, 《이경석사궐장연회도첩》, 《만력기유사마방회도첩》, 《괴원성회록》, 《윤지당유고》, 〈이이명 영정〉, 〈조정진 초상〉 등

2. 전시소개

고려대학교박물관은 특별전 〈老年을 넘어 熟年の 시간〉을 개최한다. 장수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오늘, '나이 듦'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라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전통 문화의 시선에서 탐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회화와 문헌, 공예, 의례 자료, 초상화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사회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 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노년이 단순히 연령으로 규정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경험이 무르익는 과정, 곧 熟年(숙년)의 시간이며 인간적 성숙의 절정기임을 조명한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되며 고사인물도, 도석인물도, 초상화 등의 회화자료와 도자기 및 공예품, 기록화와 고서 등 총 105건의 유물이 출품된다. 전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오래 산 사람들 - 현실을 넘어선 존재

신선, 고사인물, 도석인물 등 회화 속 지혜와 초월의 존재를 조명한다.

2부. 장수의 염원과 상징-오래 살기 바라는 마음

장수 관련 문양, 축수 관련 공예품과 도자 등을 통해 오래 살기를 바랐던 전통사회의 소망을 살펴본다.

3부. 노년의 그늘과 돌봄의 노력 - 노년이 마주한 현실과 전통사회의 대처방식

빈곤, 질병, 소외 등 노년의 현실적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가정, 공동체, 국가의 노력을 조명한다.

4부. 익어가는 나날 - 건강을 돌보고, 벗과 어울리며, 끝내 이루다

관계 맺기, 건강 관리 자기 성찰, 문예 활동과 노년의 창작을 통해 완숙한 삶의 가치와 품격을 살펴본다.

5부. 어른의 얼굴 - 삶이 새겨진 초상

초상화와 인물 표현을 통해 전통사회가 노년에게 기대한 위상과 덕목, 그리고 삶의 경험이 축적된 얼굴의 의미를 조명한다.

3. 대표유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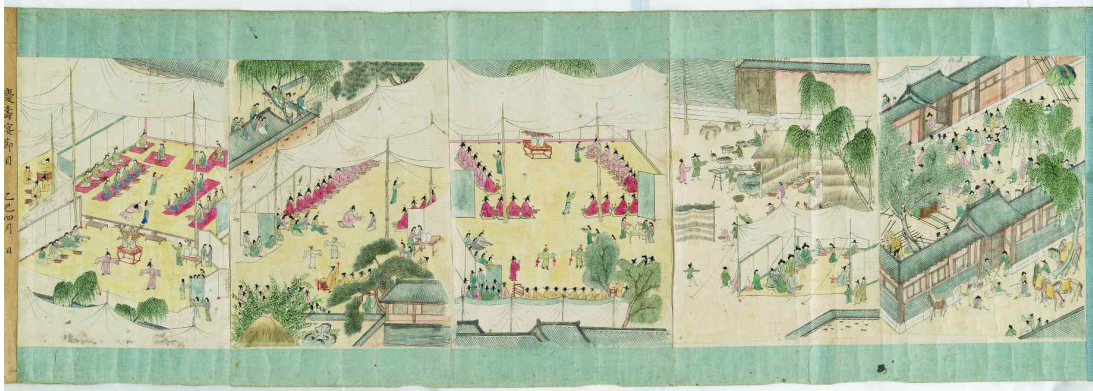
이경운 作 《산수인물화첩》



은장십장생문첩자도



《이경석사궐장연회도첩》



《의령남씨전가경완도》 중 〈선묘조제재경수연도〉



백자청화장생문사발



청자상감국화문화형잔



장시흥 作 〈선도도와 시도〉



조정진 초상



이이명 초상



《삼강행실도》(위),
《오륜행실도》(아래)